

# 청소년학 연구의 성격과 학문적 발전의 과제

—청소년학 총론을 중심으로—

차 경 수\*

- I. 서 론
- II. 과학적 연구와 청소년학의 학문적 성격
- III. 청소년 연구의 현황
- IV. 청소년학 발전의 과제
- V. 결 론

## I. 서 론

최근 몇년간 우리 주위에서는 청소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소년에 관한 연구에도 많은 진전이 있었다. 1970년대 후반에 오면서 경제발전으로 국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청소년들의 인구가 전체 국민의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많아지며, 또 청소년 비행과 범죄가 증가하는 등의 여러가지 이유가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사회적으로 불러 일으켰다. 1980년대에 와서 체육청소년부가 설립되어 청소년발전 10개년계획을 세우고 청소년의 전전육성을 위한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모색하기 시작했고, 1989년 7월 한국청소년연구원이 창설되어 청소년

년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의 추진에 공헌해 오다가 1993년 1월에는 한국청소년개발원으로 발족되어 청소년에 대한 연구와 함께 정책개발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개발원에서는 그동안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 청소년 수련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에 관한 많은 연구 과제를 수행하여 보고서를 발행했고, 여기에 「한국청소년연구」라는 학술계간지를 발행해 오고 있다.

1992년 6월에는 청소년에 관심이 있는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정치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모여 한국청소년학회를 창설하여 여러 차례의 학술대회와 세미나를 가졌으며, 머지 않아 전문적인 학회의 학술지도 발행할 것이라고 청소년학회의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한국청소년학회에서는 유해환경 고발에 관한 보고서도 발행하여 단순한 이론적인 연구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 전전육성을 위한 실천적인 면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교수

에도 관심을 기울여 일반적인 학자들의 모임인 학회와는 좀 다른 특수성을 보이기도 했다. 이것은 청소년에 관한 연구가 순수한 이론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건전육성이라고 하는 교육적, 실천적인 측면을 불가피하게 포함하는 데서 오는 것으로 여겨진다.

청소년의 연구에 관한 이러한 급작스러운 수량적인 증대가 우리의 청소년 연구나 정책에 대해서 갖는 역사적인 의의나 공헌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한 작업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우선 이 시점에서 우리가 확실히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연구가 쏟아져 나오면서 청소년에 관한 연구가 학문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그것은 필연적으로 “청소년학의 발전 가능성”에 관한 논의를 우리 사회에 불러 일으켰다는 점이다(최충욱, 1992: 27-40; 한승희, 1991: 41-57; 권이중, 1992: 3-28; 강대근, 1992: 29-52). 그러나 이들의 논의는 청소년학의 연구방법이나 내용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하고,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했지만, 한국에서의 청소년학의 현황을 분석하고, 학문적 성격을 검토하면서 하나의 학문으로서의 청소년학이 발전하기 위하여 기대되는 과제를 제시하는 데는 미흡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글의 목적은 한국에서의 청소년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의 발전과 청소년학의 학문적인 성장을 위해 청소년학의 학문적 성격 고찰, 청소년학의 발전을 살펴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범위 안에서의 청소년에 관한 연구의 현황 분석, 청소년학의 발전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 등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 필자가 제시하는 주장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한국에서 이제 시작되고 있는 청소년학의 연구는 청소년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에 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나 한국의 경험적인 현실을 토대로한 관찰, 개념화, 일반화, 이론, 법칙의 확립으로 이어지는 연구를 위한 노력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청소년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이론적인 연구의 추진에 더 관심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 II. 과학적 연구와 청소년학의 학문적 성격

청소년학이 하나의 견고한 학문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과학으로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과학과 과학적 지식, 과학적 연구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간단하게나마 고찰할 필요가 있다. 과학의 특징을 살펴 본 후 청소년학의 학문적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과학적 연구가 갖추어야 할 조건

과학과 과학적 연구를 한마디로 서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대략 그것은 우리들과 우리들 주위에 있는 현상을 이해하고 그것과 관련된 지식을 갖게 해주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방법상의 특색은 관찰과 논리적 사고의 두가지를 기본으로 한다. 사람이 감각적인 기관으로 보고 느낀 것을 합리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이 개념이다. 개념은 일종의 추상적인 “발명품”으로 관찰한 상황을 독특하게 언어로 표현하는 데 그 가치와 생명이 있다. 개념의 고전적인 의미는 사물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류하여 그 속성을 서술한 것이지만, 이때는 언어의 약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것을 논리라고 한다. 관찰은 경험의

문제이고, 논리는 합리성의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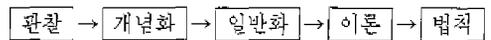
관찰과 논리 또는 경험과 합리성은 과학의 두가지 핵심이다. 그러므로 과학은 사실이나 사실의 단편적 관찰만 가지고도 이루어질 수 없으며, 또 사실이나 사실의 관찰없이 합리적인 사고나 논리만으로 이루어질 수도 없다. 과학에서는 관찰한 것을 추상적으로 표현하여 그에 대한 개념을 구성하고 개념은 실험에 의해서 검증되어야 한다. 이것을 논리적-경험적 *logic-experimental* 또는 합리적-경험적 *rational-empirical* 과정이라고 한다. 과학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서 발전하게 된다. 과학이 도덕이나 종교, 형이상학, 문학 등과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새로운 개념만을 창조하거나 새로운 관찰만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개념이나 사실들은 계속하여 관찰됨으로써 개념은 수정되는 것이다. 예컨대, 사회의 변동과 청소년의 가치관의 관계는 과거부터 존재해 왔지만, 각각 관점의 차이와 새로운 경험적 자료에 의하여 새로운 개념과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즉, 개념화-경험적 증명-재개념화의 과정 *conceptual-empirical-reconceptualization process*을 형성하는 것이다. 과학은 이러한 재개념화의 끊임없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Rudner, 1966 : 28-47 ; Kaplan, 1964 : 27-42).

재개념화를 통해서 구체적 사실과 사실의 관계가 체계적으로 서술될 때 그것은 일반화 *generalization*가 되고 그것이 학자들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수락될 때 이론 *theory*이 된다. 이론이 더 확고하게 될 때 그것은 다시 법칙 *law*이 된다. 그리고 과학의 참된 의의는 여기에 있다. 과학의 최후의 목적은 예측과 통제에

있다고 하는 말도 법칙의 발견에서 가능해진다. 버트란드 러셀이 과학을 가리켜 “과학은 수많은 개별적인 사실을 일반적으로 이끄는 일종의 지식”이라고 했으며 (Russel, 1931 : 10), 코헨과 네이겔이 “과학의 근본정신은 유리된 사실을 체계적으로 연결시키는데 있다. 단편적으로 분리된 명제는 과학을 형성할 수 없으며, 그러한 명제는 사실들 사이의 논리적 관련을 찾으려고 하는 기회를 제공할 뿐이다 (Cohen and Nagel, 1934 : 394)”라고 한 것은 이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법칙의 발견은 과학의 근본정신이란데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

〈그림 1〉 과학적 지식이 획득되는 과정



과학적 지식이 획득되고 과학이 발달하는 이상과 같은 과정에서 우리는 과학적 지식은 경험적 증거에 의한 지식이며, 그것은 언제나 비판과 수정이 가능한 개방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과학은 윤리적 중립성을 특징으로 하며, 정확성, 정밀성, 체계성, 객관성 등을 요구한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특징은 과학적 연구의 대상은 수량적이고 경험적인 증거와 분석이 가능한 현상에 한정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념이나 도덕의 문제, 바람직한 행동의 발달이 주요한 과제가 되는 교육적인 현상에서는 과학적 연구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도 이러한 이유에서인 것이다.

## 2. 청소년학의 학문적 성격

우리는 지금까지 과학적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측과 통제가 가능한 법칙의 발견에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것은 경험적인 자료를 통해서 검증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러면 청소년학은 이상과 같은 과학적 연구를 기초로 진행하고 있는가? 청소년학은 하나의 학문인가, 하나의 과학인가, 학문과 과학은 어떻게 다른가 등의 의문이 당연히 제기된다. 이러한 의문은 청소년학의 학문적 또는 과학적 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개념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채 혼동하여 사용함으로써 청소년학의 개념이나 방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우리는 청소년학의 개념, 학문적 성격, 내용구성, 연구방법, 미래의 모습 등을 고찰함으로써 이 문제를 어느 정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 1) 청소년학의 개념과 목표

청소년학은 청소년의 인지적, 정의적, 신체적 발달과정을 이해하고 그러한 발달에 영향을 주는 사회, 문화적 변인을 연구함으로써 청소년비행의 예방과 치료방법을 제시하여 건전한 청소년육성에 공헌하고자 하는 학문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학은 청소년을 그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건전한 성장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것이 근본목적이다. 청소년학은 학문적 노력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활동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청소년 관계의 단체나 행정 담당자들, 부모, 교사들, 사회복지사들이 직접적으로 할 일이다. 청소년학은 그러한 활동이 가

능하도록 개념을 창조하고, 법칙을 발견하며, 건전한 성장을 위한 방법과 정책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청소년학은 심리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들 학문들도 청소년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문들이 청소년 연구를 그 자체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각 인간의 행동이나 사회집단 등 그들의 고유한 연구 대상과 연구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비하여 청소년학은 청소년을 직접적으로 연구의 대상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청소년학은 여타의 다른 학문들과 다른 점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학문들의 연구 결과들이 청소년학의 연구에 커다란 도움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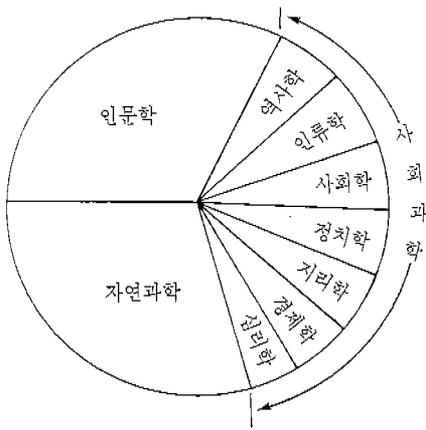
### 2) 학문적 성격

학문이란 무엇인가? 청소년학은 학문인가, 과학인가 하는 논의를 자주 듣게 된다. 자연과학에서 가장 오래 된 물리학이나 화학, 사회과학에서 정치학이나 경제학, 심리학 등의 학문적 성격을 의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학문의 문화와 발달에 따라서 최근에는 부동산학, 아동학, 노인학, 여성학, 관광학, 비서학 등도 생겨났고, 학과도 조직되었다. 한편에서는 드라이클리닝공학, 주부학 등이 출현할 날도 머지 않았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영역의 연구를 학문이라고 부르는데 대하여 크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이들을 과학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없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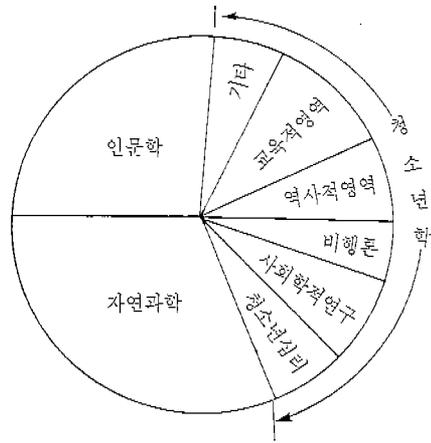
이러한 현상을 관찰해 볼 때 학문이라는 말은 크게 보아 두 가지로 쓰이는 것 같다. 하나

는 어떠한 현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할 때 넓은 의미로 그것을 학문이라고 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학이나 철학, 또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분야의 연구들은 과학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학문인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두번째는 과학과 학문을 같은 의미로 쓰는 경우이다. 과학은 앞에서 이미 서술한 것처럼 경험적인 증명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면서 개념화와 실험, 증명의

과정을 반복하는 가운데 이론과 법칙을 발견하는 연구 방법이다.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의 연구에서는 과학적인 지식만이 경험적인 증명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가장 확고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어떤 학문이 과학적인 지식의 체계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가장 발달되고 누구도 그 학문적 성격을 의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림 2〉 과학의 분류



〈그림 3〉 청소년학의 영역

〈그림 2〉는 학문과 과학을 분류한 그림이다. 그림에서처럼 자연과학은 경험적인 법칙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과학이다. 그러나 인문학은 과학과는 별개의 논리적 구조와 연구방법을 가지고 있다. 사회과학 중에서는 심리학이 자연과학에 가장 가깝고, 그 다음이 경제학, 지리학, 정치학, 사회학, 인류학, 역사학의 순서로 되어 있다. 인류학은 수량적인 분석보다 참여관찰과 민족지학 등 해석학적인 방법도 많이 쓰고, 역사학은 역사의 서술에서 문학과 비슷한 방법을 쓰기 때문에 역사학을 인문학으로 분류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다. 이들은 사회과학 중에서는 가장 인문학 쪽에 가깝다(Banks,

1977 : 302).

〈그림 3〉은 청소년학을 사회과학의 일종이라고 가정할 때 그 주요 영역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표현해 본 것이다. 〈그림 2〉의 분류를 따른다면 심리적인 발달 영역이 가장 과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이 사회적인 영역, 비행론, 역사적 측면, 교육적 측면, 기타 청소년에 관한 여러가지 논의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학이 청소년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연구할 때 그것을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사회과학인가 또 순수과학 또는 기초과학인가 아니면 응용과학인가를 질문에

대해서는 좀더 고찰할 것이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청소년에 관한 연구가 얼마나 다른 학문 분야와는 다른 독특한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 내용이 관찰한 것을 표현하기 위한 창조적인 개념화에 얼마나 성공적이며, 경험적인 증명에 의한 일반화, 이론, 법칙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냐에 의해서 결정될 일이다. 다음의 내용에 관한 부문에서 다시 고찰하려고 하지만, 우선 청소년연구의 주요 내용이 심리적, 사회적인 것으로 조직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현재의 단계에서는 청소년학이 하나의 독립된 체계적인 과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과제가 남아 있으며, 심리학이나 사회학, 교육학의 연구에서 청소년에 관한 부분을 청소년학의 연구목적에 따라 주로 추출하여 구성하는 오늘날의 청소년학은 일종의 응용학문이라고 그 성격을 서술할 수 있을 것이다.

### 3) 내용 구성

이제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학의 내용은 주로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등 세개의 사회과학으로부터 주로 선택되어 조직된다고 볼 수 있다. 심리학은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과정과 특징에 관한 연구의 자료를 제공한다. 청소년기는 인생에서 대단히 중요하고도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는 청소년학에서 가장 기본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신체적 발달 뿐만 아니라 도덕성 발달과 성관계의 특수성 등도 여기에서 같이 다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연구 경향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사회학적인 연구이다. 사회학적인 연구는 청소년의 가치관과 청소년

문화 등에 관해서 연구 결과를 청소년학에 전해 준다. 그러나 사회학자들의 가장 중요한 공헌은 청소년비행과 그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의 비행과 관련하여 사회학자들은 수많은 경험적인 연구를 진행해 왔고, 이론과 일반화의 축적도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 사회복지학의 연구들도 이 분야의 프로그램에 관해 많은 연구를 제공하고 있다.

또 청소년학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주요한 목표로 하기 때문에 교육학의 연구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된다. 교육학은 청소년교육의 목표, 방법, 프로그램 구성, 평가 등에 관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고 구체적인 실천의 방법을 시사해 준다. 그이외에 정치학 분야에서는 정치적 사회화나 정치교육에 관해서, 경제학에서는 청소년의 근로나 소비행위에 관해서, 인류학에서는 청소년문화의 비교연구에 관해서, 체육에서는 신체단련활동과 관련하여 각각 청소년과 관련된 중요한 연구를 진행한다.

청소년학은 이상과 같이 여러 학문의 연구 중에서 청소년에 관한 연구를 선택, 추출하여 그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학문에서 취급하지 않는 독특한 내용을 청소년학이 얼마나 갖느냐에 따라서 청소년학의 학문적인 가치가 결정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만약 심리학이나 사회학에서 청소년학의 주요 내용을 빌려 온다면 그것은 심리학이나 사회학의 일부가 되는 것이지 청소년학이라고 하는 독립된 학문의 성립을 위한 정당성의 근거를 의심하게 하기 때문이다.

<표 1>은 청소년에 관해서 미국과 일본에서 발행되어 널리 읽히고 있는 저서 몇권의 내용

목차를 비교한 것이다. 램버트(Lambert)와 스마트(Smart)의 책은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고, 기본스(Gibbons)의 책은 사회학자에 의해서 집필된 것이다. 이것 이외에도 콘저(Conger)가 저술한 『청소년기와 청소년』도 널리 읽혀 온 책인데, 그는 램버트와 비슷하게 정체성 요구, 신체적 성장, 지적 성장, 부모와 가족, 성, 또래집단, 교육, 직업, 도덕적 발달, 비행, 소외, 정신질환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Conger, 1977). 일본에서 출판된 池木과 安本の 책은 주로 교육학과 심리학을 연구한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다. 이들은 청소년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들을 매우 포괄적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청소년단체와 청소년정책, 그리고 청소년들의 소득과 소비의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검토할 때 심리적, 신체적, 지적, 도덕적 발달 등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관한 부분은 공통으로 들어가 있고, 자아실현,

인간의 성장 등 심리학적 내용이 첨가되어 있다. 또 가치관, 비행, 또래집단, 세대차 등 사회학적인 내용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이외에 교육, 경제적 측면, 청소년정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은 청소년에 관한 여러 논의와 연구들을 상당히 포괄적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우리나라의 청소년학 논의에도 좋은 시사를 주고 있다.

#### 4) 연구방법

청소년학의 연구방법은 실증적 방법이나 해석학적인 방법, 참여관찰, 역사적 방법 등 사회과학에서 사용되는 어느 방법도 사용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보아도 기능론과 갈등론 등 어느 시각에서도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학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연구방법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청소년의 역사에 관한 부분의 연구는 역사적인 방법에 의존하는 것이 당연하겠고, 심

<표 1>

청소년에 관한 주요 저서 내용의 비교

Lambert(1)	Smart(2)	Gibbons(3)	池木 清(4)	安本(5)
청소년과 가정 사회적 발달	신체 성장	법, 경찰, 법정	의식과 행동	청소년비행
신체적 발달	지적 발달	비행의 원인	직업, 생활양식	성장환경
성적 행동	또래집단	근로층 비행	소득과 소비	부모와의 관계
정서적 발달	부모관계	중산층과 비행	가치관	이상주의
도덕적 발달	정체성 요구	여성비행	체력, 교육	청소년의 특징
청소년 비행	자아실현	국제적 비교	청소년단체	
청소년교육	인간과 성장	비행교정	청소년비행	
세대차		비행치료대안	청소년정책	

자료 : (1) B.G. Lambert et al., *Adolescence*, 2nd ed. Monterey, CA: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1978.

(2) M.S. Smart and R.C. Smart, *Adolescents*, NY : Macmillan, 1978.

(3) D. Gibbons, *Delinquent Behavior*, 3r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1.

(4) 池木 清 의 2인, 현대의 청소년, 도오쿄오 : 종합노동연구소, 1978, 일본어판임.

(5) 安本 弘, 청소년기의 특질과 교육, 도오쿄오 : 명치도서, 1984, 일본어판임.

리학이나 사회학의 연구는 주로 경험과학적인 연구방법을 써야 할 것이다. 또 청소년교육이나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해서는 교육학적인 방법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청소년학의 발달을 위해서는 청소년에 관한 경험적인 이론과 법칙, 일반화 등을 견고하게 하고, 그들을 축적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과학으로서의 청소년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실증적인 방법에 의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다른 분야와는 다른 청소년에 관한 독자적이고 독특한 연구방법을 발전시킬 때 청소년학은 그만큼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점에 우리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 단순한 서술이나 사실의 발견에 관한 연구보다 인과관계를 발견하고 이론을 축적하는 설명적이고 분석적인 연구가 많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III. 청소년 연구의 현황

청소년에 관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여러 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 학술논문의 형태를 가진 것도 있고 단순한 주장이나 의견조사도 있다. 이들을 모두 조사한다는 것은 이 글에서는 어려운 일이다. 여기서는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발행하고 있는 계간 학술지 『한국청소년연구』에 실린 논문들을 대상으로 그 성격과 종류, 형태 등을 분석하여 한국 청소년연구의 경향을 시사받고자 한다. 『한국청소년연구』는 한국청소년개발원이라는 기관에서 출판하고 있고, 1992년 겨울호까지 11권이 출판되었다. 이 간행물은 출판 기관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학술논문 이외에

현장보고나 자료가 실리는 등 순수한 전문학술지와는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면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청소년에 관한 논문을 전문적으로 출판하고 있는 학술지라고 할 수 있고, 또 청소년에 관한 학문적 연구의 발전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분석하고 있는 우리의 청소년 연구의 현황을 이해하는데 커다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표 2〉는 1990년 1월의 창간 당시부터 1992년 12월까지 11권의 『한국청소년연구』에 실린 글들의 성격, 종류, 형태 등을 분석한 것이다. 이 글들의 분석은 필자와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대학원에 있으면서 글의 내용을 비교적 잘 알고 있다고 여겨지는 대학원생 2명 등 세 사람의 협의로 이루어졌다. 세 사람은 모두 비교적 청소년 관계의 연구나 문헌에 익숙한 편이지만, 연구자들의 분류가 객관성이 완전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구자들의 편견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편견의 가능성은 세 사람이 협의하여 결정했기

〈표 2〉 『한국청소년연구』지 논문의 연구 성격별 분류

(1990-92, 11권)			
논문의 성격	숫자	비율 (%)	순위
실태조사 및 정책 제시	37	33.3	1
문헌연구	24	21.6	2
현장보고	18	16.2	3
이론 및 연구동향 소개	13	11.7	4
이론검증 및 경험적 연구	12	10.8	5
연구방법	2	1.8	6
기타	5	4.5	
합계	111	100.0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왜곡할 정도의 심각한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표 2>가 보여 주고 있는 바와 같이 논문의 성격 중 가장 많은 것은 실태조사 및 정책 제시로서 33.3%를 차지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의 현실을 바탕으로 한 실태조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조사가 많이 추진된 것으로 생각되며, 정책연구가 많은 것은 발행기관의 성격에서 오는 특수성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많은 것은 21.6%의 문헌연구이다. 문헌연구는 경험적인 자료를 사용하여 연구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발표된 문헌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한 것이다.

또 청소년연구에 관한 사회과학 각 영역의 이론과 연구의 동향을 소개한 것이 11.7%, 경험적 자료를 이용하여 이론을 검증한 연구의 형태가 10.8%이다. 현장보고는 역시 발행기관의 성격에서 오는 것으로 여겨지며, 16.2%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을 종합해 보면 실태조사와 정책제시에 관한 것이 가장 많고, 이론검증이나 경험적 연구, 특히 연구방법에 관한 논문이 매우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서 하나 분명하게 밝히고 싶은 것은 이상과 같은 분석을 이 논문에서 시도하는 것은 『한국청소년연구』지에 실린 논문의 질을 평가하거나 논문의 경향을 비판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분석의 목적은 한국의 대표적인 청소년 연구지라고 할 수 있는 등 간행물을 통해서 한국 청소년연구의 경향을 시사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표 3>이 보여 주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청소년연구가 다양한 여러 학문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

<표 3> 『한국청소년연구』지 논문의 학문적 영역의 분석

(1990-92, 11권)

학문적 영역	숫자	비율 (%)	순위
사회학	21	18.9	1
교육학	20	18.0	2
심리학	7	6.3	3
사회복지학	6	5.4	4
보건학	6	5.4	4
체육학	4	3.6	6
문화인류학	4	3.6	6
법학	3	2.7	8
정치학	2	1.8	9
가정학	2	1.8	9
신문방송학	1	0.9	11
여성학	1	0.9	11
기타	34	30.6	
합계	111	100.0	

교적 분명하게 학문영역의 분류가 가능한 것만 해도 12개의 영역에 걸쳐 있으며 분류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기타로 한 것까지 합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날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미 앞에서 내용을 서술할 때 시사한 것처럼 사회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체육학의 영역에서 가장 많은 논문이 실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학이 18.9%, 교육학이 18%로 가장 많고, 심리학 6.3%, 사회복지학 5.4%, 보건, 체육이 합해서 9%를 차지하고 있다. 문화인류학을 사회학과 합친다면 그 비율은 22.5%가 된다. 이것은 결국 청소년학의 연구가 사회학, 심리학, 교육학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서 앞에서 가설적으로 제시한 청소년

년학의 내용구성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분석을 청소년학의 발달과 연결하여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한 몇개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우리나라에서의 청소년 연구는 '우리의 경험적 현실을 바탕으로 하여 개념화하고, 이론을 발전시키고, 일반화하려는 연구가 활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많은 연구가 연수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거나 이론과 충분히 연결되지 않은 실태조사나 청소년정책의 제시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이상의 연구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연구에서 쉽게 발견되고 있는 현상이다. 둘째는 연구방법에 관한 연구나 논의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셋째는 청소년연구와 관련된 학문적 분야가 매우 다양하여 청소년학의 내용구성이나 조직, 연구방법의 개발, 지식의 체계화 등을 시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세가지 특징은 청소년학을 하나의 과학으로서 또는 하나의 체계적인 학문으로서 발전시키려 할 때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 IV. 청소년학 발전의 과제

우리나라의 청소년에 관한 연구의 경향을 이상과 같이 분석할 때 우리는 청소년학의 발전을 위해 몇가지 노력할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들을 아래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는 앞에서 경험적 현상의 관찰 결과에 대한 개념화의 시도, 이론과 법칙의 정립 등 과학적인 방법에 의한 지식의 축적이 학문의 발전을 위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을 서술했다. 우리의 청소년연구는 이 부분에서 좀더 발전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지난 수십년 동안 청소년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연구가 우리의 경험적인 현실을 중심으로 관찰한 것을 일반화하는 시도를 하는 데는 너무나 미흡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연구는 연구대로 진행되었으나 그러한 연구들이 상호 연결성을 갖지 못하고 또 축적되지도 못했기 때문에 한국 청소년에 관한 연구의 개념화나 이론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가지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지금까지의 다양한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상호관련성을 발견하여 연구가 축적된 가운데 새로운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이론의 발전을 위한 비판적인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도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일이다. 다음은 의도적으로 개념화를 시도하고 이론과 법칙을 검증하는 연구를 많이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적어도 청소년학회에서 논의되는 토론은 이러한 방향에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위의 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때 청소년연구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 정책연구, 연수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현장의 청소년활동에 관한 연구 등은 전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청소년학의 학문적인 발전과 관련된 개념화, 이론과 법칙의 발전 등을 위해서는 핵심적인 부분이 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학을 하나의 과학이나 학문으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연구들보다 이론의 일반화를 위한 연구나 청소년과 관련된 현상의 법칙을 밝혀내는 기초연구를 더 활발하게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초연구를 토대로 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개발될 때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이나 프로그

램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아 적합성과 안정성을 가지게 될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일이다.

셋째, 연구방법에 관한 논의가 관련 학자들에 의해서 더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학과 같이 생성과정에 있는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는 청소년학이 다른 학문적 연구와 구별되는 독특한 성격을 발전하고 그 학문적인 정체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은 더욱 요청된다. 우리는 학문의 발달이 결국은 방법론의 발달과 직결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연구의 문제는 언제나 발견될 수 있고, 사실은 “거기에 던져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문제들을 학문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방법론이다. 새롭게 탄생되고 있는 학문들이 방법론을 중심으로 논쟁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때문인 것이다.

교육학 분야에서 비교적 새롭게 탄생되어 온 비교교육학이 시작되던 1970년대에 이들의 학술지인 『비교교육학』 *Comparative Education Review*이 영역의 내용구성과 연구방법론에 관한 논의들을 전개한 것을 보면 우리는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1970년, 1972년, 1973년의 『비교교육학』에 나온 중요한 것만 몇가지 보더라도 우리는 최근의 비교교육 발달, 비교교육학 방법론, 비교교육의 프로젝트, 비교교육학자들의 분석기술, 과학적 비교교육학의 교수방법, 70년대의 비교교육학, 비교교육학과 가치, 비교교육학에 있어서의 과학적 탐구, 비교교육학의 미래, 미래의 비교교육학을 위한 문제, 비교교육학 연구의 한계, 비교교육학과 문화혁명 등 많은 논문이 방법론과 학문의 미래에 관하여 심각한 반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Comparative Education Review*, 1970, 1972, 1973).

우리가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청소년학의 내용구성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등의 학문적인 연구가 주요한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요청되는 것은 경험과학적인, 말하자면 실증적인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청소년학이 한국의 경험적인 현실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또 그러한 현실로부터 일반적인 법칙을 정립하려고 하는 데서 오는 당연한 요청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은 통계적이고 수량적인 방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참여관찰이나 면접, 통계적인 방법의 약점을 보완해 주는 사례연구, 해석학적인 연구도 함께 병행될 때 청소년연구는 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내용 구성에 관해서는 이미 언급을 했지만, 여기서 다시 제기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학 내용의 종합성에 대한 것이다. 심리학이나 사회학, 교육학 등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경험과학적인 방법론에 의해서 일반적인 이론을 수립하는 것이 앞으로의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그 이외의 사회복지학, 가정학, 경제학, 정치학, 체육학 등 인접과학의 연구 내용도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다. 또 교육학의 분야에서는 청소년 활동을 위한 실천적인 프로그램과 활동방법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청소년정책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일 것이다.

다섯째, 한국 사회에서의 청소년 연구의 적합성과 정당성에 관한 문제도 제기되어야 한다. 적합성은 연구가 실제로 한국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얼마나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요, 정당성의 문제는 한국 사회의 윤리적 기준에 비해 볼 때 연구가 얼마나

뒤틀리며, 우리 이념의 실현에 얼마나 공헌하느냐와 관련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인간으로서의 청소년들의 존엄성이 얼마나 존중되고 있으며, 청소년을 상업적인 영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일은 없는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 예컨대 의복, 스포츠, 식당, 약물, 참고서, 학원, 오락, 연예 등의 사업은 건전한가, 70년대와 80년대에 성했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시위는 무엇을 의미했는가,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 자신들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가,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은 21세기를 충분히 준비하고 있는가 등의 문제가 청소년 연구에서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청소년에 관한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적절하게 제기하지 못했던 것 같다.

## V. 결 론

청소년학의 발달을 위한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서 청소년학의 미래의 모습과 과제를 시사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최근 몇년 사이에 청소년에 관한 우리나라의 연구가 활성화 되어 왔다. 체육청소년부의 그간의 활동, 청소년학회의 창립,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설립 등이 청소년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는 역할도 했다. 이러한 외형적인 변화와 함께 청소년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학 연구의 현황을 살펴보고 미래의 과제를 시사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청소년학은 경험적인 청소년의 세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이므로 하나의 과학으로서 발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과학은 관찰, 개념화, 일반화, 이론, 법칙의 발견 등

의 과정이 반복되는 가운데 발전한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청소년 전문학술지로 발행되는 『한국청소년연구』의 창간 이후 11권의 『한국청소년연구』에 나온 논문들의 성격과 형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연구의 현황을 살펴보려고 했다. 분석의 결과를 보면 청소년에 관한 연구들은 이론과 직접 연결되지 않은 실태연구나 조사연구가 가장 많고, 경험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이론을 검증하는 연구나 연구방법에 관한 연구가 매우 드물다. 그리고 청소년에 관한 연구가 10여개의 매우 다양한 사회과학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볼 때 우리나라 청소년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청소년에 관한 개념화와 일반화, 이론과 법칙의 발전을 위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야 청소년학의 연구가 견고한 하나의 과학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학문의 발전은 궁극적으로는 연구방법론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이므로 앞으로 연구방법에 관한 논의가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에서의 적합성과 정당성이라는 면에서도 연구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청소년의 인간화와 민주화라는 문제가 청소년에 관한 연구 전반에서, 그리고 특히 청소년의 교육에서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청소년학을 하나의 과학으로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우리는 더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청소년학은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등 다양한 학문의 도움이 없이는 발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수용하는 성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연구방

법 역시 내용의 다양성에 따라서 다양한 연구 방법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험적인 검증을 위한 연구가 축적되어 갈 때 한국의 청소년

학은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이 다른 학문과 다른 독특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문적으로 발전해 갈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대근(1992), “청소년학의 범위와 방법론 모색”, 청년연구, 15집,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pp. 29~52.
- 권이중(1992), “한국 청소년학의 성립과 전개”, 청년연구, 15집,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pp. 3~28.
- 최충옥(1991), “청소년학의 정립을 위한 시론”, 청소년학대회 논문집, 한국청소년학회, pp. 27~40.
- 한승희(1991), “청소년연구를 위한 Model 탐색”, 청소년학대회 논문집, 한국청소년학회, pp. 41~57.
- 한국청소년연구원, 『한국청소년연구』, 1990~1992, 1권~11권.
- Banks, J.A., *Teaching Strategies for the Social Studies*, 3rd ed., Reading, Mass.: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77.
- Cohen, M.R. and Nagel, E., *An Introduction to Logic and Scientific Method*, NY: Harcourt & World Inc., 1934.
- Comparative Education Review*, Vol. 14, No. 3, October 1970; Vol. 16, No. 3, October 1972; Vol. 17, No. 3, October 1973.
- Conger, J.J., *Adolescence and Youth*, 2nd ed., Harper & Row, 1977.
- Kaplan, A., *The Conduct of Inquiry*, Scranton, Penn.: Chandler Publishing Company, 1964.
- Rudner, R.S., *Philosophy of Social Scienc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66.
- Russel, B., *The Scientific Outlook*,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Ltd., 1931.